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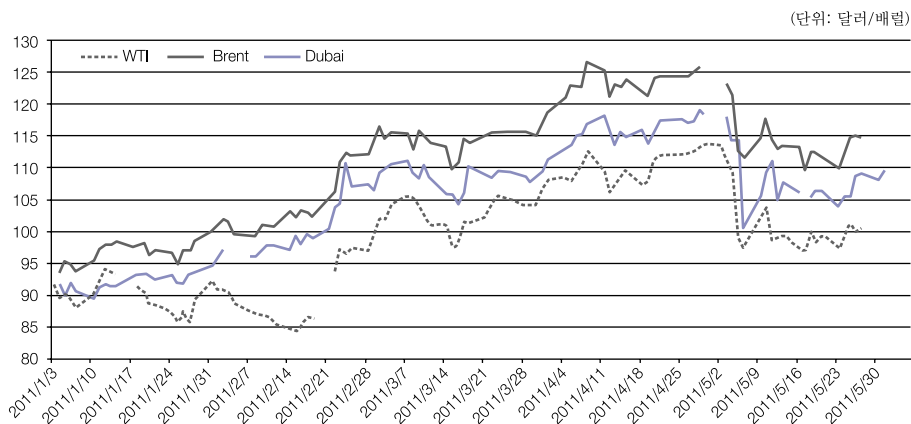
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가. 국제유가 동향

2011년 2월 21일 두바이 현물유가가 2년 5개월 만에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 2개월여 만인 4월 28일에는 119달러대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두바이 원유가격이 2008년 8월 4일 122.51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한 원유생산차질이 알려

졌으며 유럽으로의 원유수출은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까지 리비아의 원유생산과 수출은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4월부터 리비아 반군 진영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는 원유가 카타르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카다피 군과 반정부 군 간의 교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당분간 리비아 원유생산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레인, 시리아, 오만, 예멘 등의 중동 국가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림 1] 2011년 국제유가 추이



한편, 5월에 들어서자마자 국제유가가 한주 만에 10% 이상 하락하는 폭락장이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유로화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이다. WTI와 브렌트 현물가격이 현시시간 기준으로 5월 5일에 각각 배럴 당 10.09달러와 8.65달러 하락하였으며 두바이 원유가격은 다음 날인 5월 6일에 3.92달러 하락하였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WTI와 브렌트 현물유가가 5월 첫째 주 동안에 각각 배럴 당 16달러와 14달러 정도 급락하였으며 두바이 유가도 8달러 정도 하락하였다. 4월 내내 두바이 원유가격이 배럴 당 112~119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며 하루 평균 1.4달러 정도의 등락폭을 나타냈던 것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변화라 할 수 있다. 5월 둘째 주에도 변동성 장세는 이어졌다. 5월 첫째 주의 급락세를 일부 만회하는 듯 주초 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주 중반에 다시 급락하며 주간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된 셋째 주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강보합세에서 정체된 양상을 보

이며 5월 마지막 주를 마감하였다. 최근 국제유가의 정체현상은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더불어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달러화 가치에 반응하는 국제유가의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¹⁾.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2011년 들어서자마자 튀니지 소요사태로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 현재까지도 석유시장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안감을 주고 있다. 리비아의 내전 상황이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의 중심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리비아의 4월 원유생산이 20만b/d로 2010년 평균생산량 1.6백만b/d 중 80%이 감소된 셈이다²⁾. 리비아 내전이 확대되면서 원유수출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4월 중에 반정부군 진영에서 생산되는

〈표 1〉 국제유가 분기별 추이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0					2011			
	1/4	2/4	3/4	4/4	평균	1/4	4월	5월	평균
두바이	75.90	78.18	73.99	84.27	78.13	100.84	115.76	108.04	105.14
브렌트	76.93	78.35	76.91	86.90	79.66	105.56	123.26	114.27	110.57
WTI	78.68	77.83	76.05	85.16	79.49	94.56	109.96	101.29	99.00

주: 2011년 평균가격은 5월 31일까지 입력된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1)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유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원유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유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됨.

2) IEA Oil Market Report, May 2011.

원유를 카타르를 통해 일부 수출하기 시작해 4월말까지 1백만 배럴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군과 시민군-나토 연합군 간 교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리비아로부터의 원유공급이 단기 내에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리아와 예멘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것도 지정학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리비아 사태에 뒤이어 발생한 시리아와 예멘의 반정부 시위 역시 현 정권이 퇴진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무력충돌에 따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와 예멘의 원유생산량이 2010년 기준으로 각각 39만b/d와 28만b/d를 나타내고 있어 리비아에 비해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우려했던 사우디나 이란 등 중동 주요 산유국으로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확산 가능성은 크게 희석되었다. 이에 따라 4월에 기록된 올해 국제유가 최고치⁴⁾가 현재 리비아-시리아-예멘 사태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반영한 유가의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⁵⁾.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장기화됨과 동시에 더 이상 상황의 진전이 없는 교착상태를 보임에 따라 4월부터 석유시장의 관심은 세계 경제상황으로 옮겨졌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술하게 나온 이야기 중 한 가지가 '더블딥'⁶⁾이었다. 지난해 해까지만 해도 더블딥은 우려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할 정도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가시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들어 더블딥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계 경제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경제회복세가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에도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2.1%)를 밑도는 1.8%에 그쳤으며,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산 중간재 부품을 조달받지 못하면서 미국의 생산 활동도 2분기부터 위축되었다. 특히,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되면서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물가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역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9%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둔화 가능성은 결국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 가능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4월 말부터 5월까지 이러한 경제침체 관련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5월 첫째 주에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유로존의 다발적인 재정위기 관련 악재로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것도 5월부터로 이 역시 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다른 통화권 국가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석

3) Oil & Gas Journal, May 9, 2011.

4) 현물기준-두바이 \$119.23/bbl, WTI \$113.81/bbl, 브렌트 \$126.51/bbl

5)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의 주요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은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으나 전망주체가 석유나 국제 원자재 등 국제 상품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만큼 이들의 전망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음.

6)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일컫음.

유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생산과 부동산 관련 경제지표가 4월과 5월에 걸쳐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여전히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도 국제사회의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가 탄탄한 만큼 희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따라서 세계 석유수요도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여 리비아의 원유생산차질이 정상화되지 않고 OPEC의 생산쿼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올 하반기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공급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국제유가도 이에 따라 5월 둘째 주부터는 소폭 상승하여 월초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하반기 향방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석유시장에서는 보험세가 지속되는 줄다리기가 5월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IEA가 하반기 세계 석유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 OPEC 추가 증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2011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4월과 5월에 걸쳐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해 세계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전 세계가 항상 세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아직도 세계 경제의 복잡성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5월

미국 휘발유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b/d 가량 감소했다.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은 것이 미국 휘발유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된 것이다. 또한 중국도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 가까이 치솟고 있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계속 높이는 등 경제성장보다는 물가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중국의 석유수요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세계 경제 둔화의 정도와 그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소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석유시장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예상이 많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석유시장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둔화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⁷⁾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5월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해 수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석유소비는 88.4백만b/d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백만b/d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전체 소비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비OECD 국가들의 소비가 2.0백만b/d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7)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Monthly Oil Market Report를 이용하여 정리함.

〈표 2〉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년	'11년*
북미	23.3	23.6	23.8	24.3	24.0	23.9	23.6	23.5	24.0	23.8	23.7	0.6	-0.2
유럽	14.6	14.2	14.1	14.8	14.7	14.5	14.0	14.0	14.6	14.6	14.3	-0.2	-0.1
태평양	7.7	8.2	7.3	7.6	8.0	7.8	8.3	7.4	7.6	8.1	7.9	0.1	0.1
OECD계	45.6	46.0	45.2	46.7	46.8	46.1	46.0	45.0	46.2	46.5	45.9	0.6	-0.2
아시아	17.9	18.8	19.4	18.9	20.0	19.3	20.1	20.4	19.9	20.6	20.2	1.4	0.9
중국	8.1	8.6	9.1	8.9	9.7	9.1	9.6	9.7	9.6	9.9	9.7	1.0	0.6
중동	7.5	7.4	7.8	8.2	7.7	7.8	7.7	8.0	8.5	7.9	8.0	0.3	0.3
남미	6.0	6.1	6.3	6.5	6.4	6.3	6.3	6.5	6.7	6.6	6.5	0.3	0.2
구소련	4.0	4.2	4.2	4.4	4.4	4.3	4.3	4.2	4.5	4.5	4.4	0.3	0.1
아프리카	3.3	3.3	3.4	3.4	3.4	3.4	3.4	3.4	3.4	3.4	3.4	0.1	0.0
유럽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0	0.0
비OECD계	39.5	40.5	41.8	42.1	42.7	41.8	42.4	43.3	43.7	43.7	43.3	2.3	1.5
전 세계	85.1	86.4	87.0	88.7	89.4	87.9	88.4	88.2	89.9	90.2	89.2	2.8	1.3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5

하였다. 비OECD 가운데에서도 아시아 개도국의 석유소비 신장세가 1.3백만b/d로 전 세계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1분기 석유소비는 10%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하여 전년 동기대비 1백만b/d 증가하며 아시아 증가분 중 74.8%를, 비OECD 전체 증가분에서는 48.2%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을 제외하면 중동과 남미 지역의 석유소비 증가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0만b/d와 20만b/d로 높게 나타났다. 중동은 석유판매에 따른 재정수입이 고유가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석유소비도 크게 늘었으며, 남미 지역은 석유개발 및 석유수

출 수익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브라질 에탄올 가격 급등에 따른 휘발유 소비 증가가 1분기 높은 석유소비 증가세로 이어졌다.

1분기 OECD 국가들의 전체 석유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소비가 감소한 반면 태평양 지역의 소비는 소폭 증가하고 북미 지역의 소비는 전년 동기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미 지역에서 미국은 휘발유 소비가 연간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와 항공유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연료의 소비가 증가하여 전

체 석유소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3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 석유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분기 보다 포근했던 겨울날씨로 난방수요가 줄어들고 고유가로 인해 난방연료가 일부분 천연가스로 대체되면서 유럽의 난방유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수송연료 소비도 고유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석유소비도 감소하였다.

OECD 태평양 지역의 1분기 석유소비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산업 활동 위축에 따른 경유소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따른 석유화력발전의 가동을 상승과 일본 재해 복구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 1분기 GDP 상승(4.2%)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0만b/d 증가하였다.

2011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3백만b/d 증가한 89.2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OECD 지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23만b/d 감소한 45.9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2분기 들어 둔화되고 있고 높은 휘발유 가격에 따른 휘발유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 북미 지역의 석유소비는 전년 대비 20만b/d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유럽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이어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 및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이어지는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악화되고 있어 석유수요의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경상황에 따라 OECD 유럽지역의 석유수요 전망치는 추가적으로 하향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전년대비 12만b/d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체 전원가동 및

일본 재건에 따른 석유수요와 한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는 올해 OECD 태평양 지역의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0만b/d 가량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EA는 올해 비OECD의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1.5배만b/d 증가한 43.3백만b/d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의 석유수요 증가가 90만b/d로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석유소비가 9.7백만b/d로 전년대비 61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9%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국 정부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휘발유 소매가격을 올리는 등 긴축정책으로 돌아서 향후 강도에 따라 올해 중국의 석유수요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중동과 남미는 많은 산유국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고유가 특수를 누리고 있어 석유수요도 각각 전년대비 25만b/d와 21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가격이 사탕수수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보다 크게 오른 것이 남미 석유수요 증가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나. 세계 석유공급

IEA가 잠정 집계한 2011년 1분기 세계 석유생산량은 88.4백만b/d로 같은 기간 전 세계 석유수요량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수급균형을 유지하였다. 전년 1분기 공급량과 비교하면 약 1.8백만b/d가 증가한 것으로 OPEC 공급량^⑧은 전년 동기대비 1.2백만b/d 증가한 35.4백만b/d를 나타내었고 비OPEC 공급량은 전년 동기대비 60만b/d 증가한 53.0백만b/d를 기

록하였다. 한편, 지난해 1분기 보다 석유공급량이 1.8백만b/d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석유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50만b/d 부족하여 석유재고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줄어든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계 석유공급량이 수요량보다는 많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유국들의 추가 증산이 요구된다. 특히 對OPEC 원유공급 요구량(Call on OPEC)은 1분기 29.7백만b/d를 나타냈으며, 2분기에는 29.5백만b/d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0백만b/d와 29.8백만b/d로 상반기보다 평균 30만b/d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NGLs를 제외한 OPEC 원유생산량은 전 분기 대비 21만b/d 증가하였다. 리비아 사태로 리비아 원유생산량이 1분기 평균 1.13백만b/d를 기록하

며 전 분기 대비 43만b/d 감소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5만b/d 증산하고 이라크와 UAE도 각각 23만b/d와 15만b/d 증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OPEC 원유생산량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이 중립지역을 제외하면 8.5백만b/d로 전년 평균생산량(8.13백만b/d)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3월까지 8.6백만b/d로 증산수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리비아 내전사태로 인해 리비아 원유생산량이 1월 1.58백만b/d에서 2월과 3월을 거치며 50만b/d 미만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OPEC 원유생산 감소로 이어졌으며 4월까지도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며 OPEC 원유생산량은 28.75백만b/d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원유생산량은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에는 10만b/d 이상 감산한 것으

〈표 3〉 세계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년	'11년*
OPEC	33.5	34.2	34.2	34.6	35.0	34.5	35.4	N/A	N/A	N/A	N/A	1.0	N/A
crude	28.7	29.1	29.1	29.3	29.5	29.2	29.7	N/A	N/A	N/A	N/A	0.5	N/A
NGLs	4.8	5.1	5.1	5.4	5.5	5.3	5.7	5.7	5.9	6.0	5.8	0.5	0.5
비OPEC	51.8	52.4	52.9	52.9	53.4	52.9	53.0	53.2	54.0	54.4	53.7	1.1	0.8
총공급량	85.3	86.6	87.1	87.5	88.4	87.4	88.4	N/A	N/A	N/A	N/A	2.1	N/A
Call on OPEC	28.5	28.9	29.0	30.5	30.5	29.7	29.7	29.5	30.0	29.8	29.7	1.2	0.0

주: 1) *는 전망치이며 OPEC 산유량은 생산쿼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전망하지 않음.

2) Call on OPEC은 전 세계 석유수요에서 비OPEC 공급량과 NGLs를 차감하여 산정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5

8) NGLs 포함함.

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리비아 원유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원유는 유럽에 주로 수출되는 리비아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고유황 중질유로 유질이 떨어져 유럽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아시아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비OPEC 석유생산량은 1분기 53.2백만b/d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4분기까지 생산량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분기에는 북미지역의 석유생산이 미국 다코타 북부 유전의 폭설과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한 가동중단과 캐나다 CNRL사의 오일샌드 생산시설의 화재피

〈표 4〉 OPEC 석유생산 추이

(단위: 백만b/d)

구 분	2010		2011				
	연간	4/4	1/4	1월	2월	3월	4월
사우디	8.13	8.30	8.55	8.52	8.62	8.62	8.51
이란	3.70	3.67	3.63	3.66	3.68	3.55	3.60
이라크	2.36	2.43	2.66	2.66	2.73	2.62	2.60
UAE	2.31	2.33	2.48	2.44	2.48	2.52	2.51
쿠웨이트	2.03	2.03	2.08	2.03	2.07	2.14	2.12
중립지역	0.53	0.54	0.56	0.56	0.56	0.57	0.58
카타르	0.80	0.81	0.82	0.82	0.82	0.82	0.81
앙골라	1.77	1.65	1.65	1.68	1.60	1.67	1.58
나이지리아	2.08	2.21	2.14	2.24	2.16	2.01	2.22
리비아	1.55	1.56	1.13	1.58	1.39	0.45	0.20
알제리	1.25	1.27	1.27	1.27	1.28	1.26	1.28
에콰도르	0.47	0.47	0.50	0.48	0.50	0.51	0.50
베네수엘라	2.23	2.20	2.22	2.21	2.20	2.26	2.25
총 원유생산	29.22	29.48	29.69	30.14	30.08	28.99	28.75
NGLs	5.28	5.50	5.74	5.72	5.74	5.74	5.71
총 생산	34.49	34.98	35.43	35.87	35.82	34.72	34.46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4, 2011.5

9) 유럽의 정제시설은 대부분 황 함유량이 낮은 고급경질원유를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리비아 원유보다 유질이 낮은 원유를 정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5〉 비OPEC 석유생산 추이

(단위: 백만b/d)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북미	13.6	13.9	14.0	14.1	14.4	14.1	14.3	13.9	14.0	14.3	14.1
유럽	4.7	4.6	4.3	3.9	4.3	4.3	4.3	4.3	4.2	4.5	4.3
구소련	13.3	13.5	13.5	13.5	13.7	13.6	13.7	13.7	13.5	13.7	13.7
아시아	7.6	7.7	7.8	7.9	7.9	7.8	7.9	7.9	8.0	7.9	7.9
남미	3.9	4.0	4.1	4.1	4.1	4.1	4.2	4.3	4.5	4.6	4.4
중동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7
아프리카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바이오연료	1.6	1.4	2.0	2.1	1.8	1.8	1.5	1.9	2.3	2.0	1.9
비OPEC 계	51.8	52.4	52.9	52.9	53.4	52.9	53.0	53.2	54.0	54.4	53.7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5

해로 1분기 보다 40만b/d 정도 감소하겠으나 남미 원유생산과 전 세계 바이오연료 공급이 50만b/d 이상 확대됨에 따라 전체 비OPEC 석유생산도 1분기보다 20만b/d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와 4분기에는 북미지역의 석유시설 가동중단 문제가 해소되고 바이오 연료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체 비OPEC 석유생산도 전 분기 대비 각각 80만b/d와 40만b/d 증가한 54.0백만b/d와 54.4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비OPEC 석유공급은 전년대비 1.5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 OECD 석유재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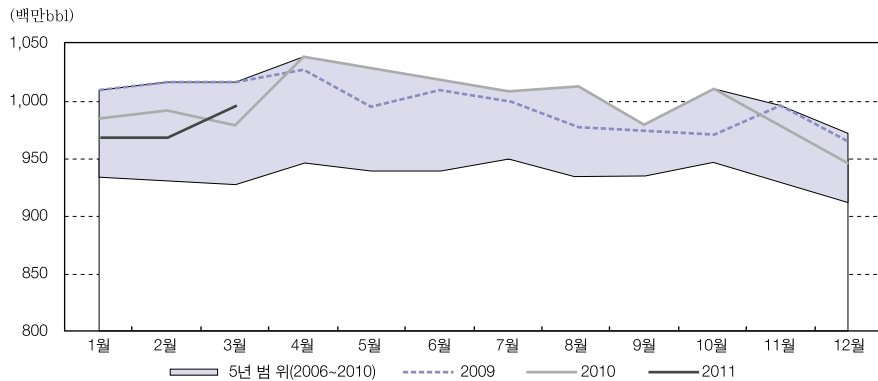
2010년 세계 석유수요가 예상외로 크게 증가하면서 석유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OPEC 석유공급은

2008년 12월 4.2백만b/d의 생산쿼터 감축 결정 이후 35백만b/d를 넘어서지 못한 탓에 2010년 세계 석유수요는 87.9백만b/d에 이른 반면 공급은 87.4백만b/d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OECD 국가들의 원유재고와 석유제품 재고도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지난해 OECD 원유재고는 4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 범위(2006~2010)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4분기 석유수요가 크게 늘면서 12월까지 급감하였다. 그럼에도 12월 OECD 원유재고는 최근 5년 평균치(9억 4천 950만 배럴)와 비슷한 9억 4천 590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OECD 석유제품 재고는 지난해 5년 범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2009년 같은 기간보다는 꾸준히 그 재고 수준이 줄어든 것을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으며, 12월에는 2009년 동월에 기록한 14억 2천 9백만 배럴보다 1천만 배럴 감소한 14억 1천 9백만 배럴을 나타내었다.

2011년 들어 1분기까지의 세계 석유수급 상황은 공급과 수요가 비슷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까지 OECD 국가 전체의 석유재고 상황은 원유재고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석유제품 재고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1년 3월 OECD의 원유재고는 지난해 12월보다 약 4천 9백만 배럴 증가하였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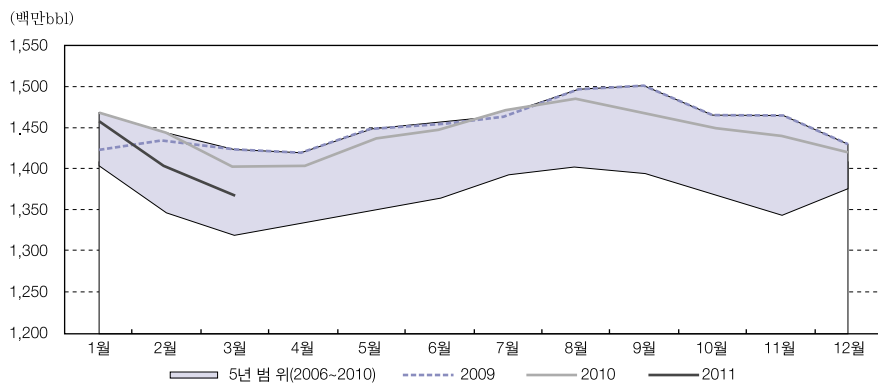
한 1월 2월 원유재고가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3월에는 전년 동월보다도 1천 6백만 배럴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정제시설 가동률이 예방정비와 고장 및 재난 피해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원유소비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로 일본의 정제시설이 한 동안 가동을 못한

[그림 2] OECD 원유재고 추이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5

[그림 3] OECD 석유제품재고 추이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1.5

것이 큰 요인이라 하겠다. 이는 [그림 3]에서처럼 OECD 석유제품재고가 올해 들어 급감하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의 3월까지의 석유제품재고는 전년 동월대비 3천 3백만 배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5년 평균치 13억 6천7백만 배럴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의 OECD 상업용 석유의 재고일수는 59일로 전 분기보다는 1일 증가하였다.

3. 2011년 석유시장 전망

5월 25일 로이터에서 투자기관과 에너지 관련 컨설팅 회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 유가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 기관마다 예상하는 올해 유가의 패턴이 크게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7년 악명 높았던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도이치 뱅크 등의 투자은행들은 올해 4분기에 브렌트 원유가격이 배럴 당 평균 12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평균 브렌트 원유가를 130달러로 전망하는 등 유가의 고공행진을 예상하였다. 반면 UBS, 크레디아그리폴 CIB 등의 유럽계 투자은행과 시장 컨설팅 회사인 Petromatrix는 브렌트 원유가격이 4분기 평균 90달러에서 최대 80달러대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왜 이렇게 전망기관마다 올해 국제유가의 방향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일까? 올해 석유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어떤 요인에 큰 비중을 두었는가가 이와 같은 전망치의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석유시장이 그

만큼 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08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금융위기로 폭락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유가의 가능한 변동폭이 크게 확장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2008년과 같은 높은 변동성이 재현되더라도 시장은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유가전망의 양극화를 초래한 석유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2011년이 시작되면서 석유시장의 시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쏠렸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었고, 리비아에서는 국가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원유생산차질로 이어졌다. 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2010년 기준으로 1,550만b/d로 전체 OPEC 원유생산량(29,220만b/d)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 4월에는 브렌트 원유 기준으로 126달러대까지 상승하였으며, 두바이 원유가격도 119달러대까지 올랐다. 현재까지도 중동-북아프리카 사태는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진행형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두 번째 산유국인 이란으로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바이 원유가격도 현재의 100~110달러 대의 유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석유시장의 관심은 수급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011년 세계 석유수요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할지, 그리고 OPEC의 석유공급량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가 5월 석유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 석유공급 능력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¹⁰⁾ 현재의 중동-북아프리카 사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석유수요의 변화가 유가를 가늠하기 위한 주요 변수가 되며, 석유수요는 세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결국 최근의 석유시장은 세계 경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연초부터 계속된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석유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석유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정도는 미미하여 석유수요 감소도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나 소식들은 현재의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 국제유가의 일시적인 급락 이러한 세계 경제침체 우려 때문이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2분기 경기지표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석유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 우려가 작용하였다. 특히, 최대 제조업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가 미국의 중간재 조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2분기 미국 산업활동 위축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중국이 물가압력에 견디지 못해 긴축재정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석유수요 감소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08년과 같은 세계 석유수요의 붕괴가 목격되고 있지는 않아

석유시장에는 유가의 상승과 하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2분기와 올해 하반기를 예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5월의 우려가 세계 경기침체의 전조가 될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회복추세를 따라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이탈이었는지를 구분해 내는 일이다.

먼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의 투자은행들과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 등 일부 연구기관 주장하는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석유수요가 많다는 패턴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OPEC 공급량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상정하면 하반기 수급상황이 팽팽해져서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석유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유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지표가 말해주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세계 최대석유소비국인 미국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도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휘발유 소매가격을 높이는 등 물가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조만간 올해 세계 석유수요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IEA는 이미 4월부터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하여 5월까지 2개월 연속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석유시장에

10) 신규유전을 탐사하여 개발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공급능력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움.

서도 하반기로 가면 무게가 유가 약세 가능성으로 기울며 유가하락이 가속화 될 것이다. 추가적인 지정학적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일부 투자은행은 하반기에 리비아 원유생산차질이 완화될 가능성도 염두하며 올해 4분기 평균유가를 브렌트 원유기준으로 80달러대를 전망하기도 하였다. 4분기 130달러대를 전망하는 기관처럼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OPEC 원유생산이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리 틀린 전망도 아니다.

한편, 2분기를 마감하는 6월에는 OPEC의 정기총회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OPEC 생산쿼터 확대결정 여부가 논의될 것이다. 비록 상징적이긴 하나 생산쿼터가 확대될지 동결될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들쭉날쭉할 것이다. OPEC 생산쿼터의 동결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이는 결국 세계 경제의 부담만 키워 세계 석유수요의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유가 하락의 시작 시기를 늦출 뿐 하락폭은 키우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표 6〉 주요기관별 2011년 국제유가 전망(5월)

(단위: \$/배럴)

전망 기관	기준 유종	2011				
		연간	1/4	2/4	3/4	4/4
CGES	브렌트	120.3	105.6	121.4	124.0	130.4
EIA	WTI	104.5	94.8	108.1	107.0	107.5
Goldman Sachs	브렌트	113.6	105.6	116.0	114.0	119.5
	WTI	104.8	94.6	104.0	107.0	114.0
JPMorgan	브렌트	120.0	105.6	120.0	130.0	120.0
UBS	브렌트	104.0	105.6	110.0	105.0	95.0
	WTI	95.2	94.6	102.0	97.0	87.0
CA-CIB	브렌트	96.1	105.6	108.0	85.0	86.0

주: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